



## ■ 전시 개요

전시명	Monopoly		
작가명	Sambypen		
전시기간	2018.10.27(토) – 2018.12.02 (일) / (전시오프닝 : 2018.10.27 (토), 6 pm)		
전시담당	주최	Gallery Stan by ACNY	대표 송인지 010-2757-4217 <a href="mailto:inji@artconciergeny.com">inji@artconciergeny.com</a>
	주관	Gallery Stan by ACNY	큐레이터 윤지수 010-2531-3429 <a href="mailto:irene.acny@gmail.com">irene.acny@gmail.com</a>
전시장소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12길 45, 갤러리스tan / 대표전화 02-2038-0839		

## ■ < Monopoly 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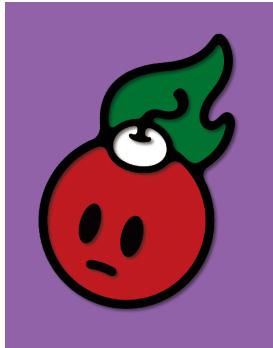
갤러리스탠은 2018년 10월 27일부터 12월 2일 까지 그래픽 작업을 기반으로 하여 자본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에 자신만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는 Sambypen(김세동) 작가의 네번째 개인전, <Monopoly 展>을 개최합니다. 작가가 주력하는 그래픽 작업을 기반으로한 작업들과 원목작업에 스프레이의 러프함을 살린 신작을 선보이며 현대사회가 직면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작가만의 시각을 보여주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의 제목인 Monopoly는 브루마블과 같은 보드게임에서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작가가 어릴 적 친구들과 모여 즐겼던 브루마블이란 게임은 주사위를 던진 후 나온 숫자만큼 말을 움직여 땅과 집을 매입하고 빌딩을 세워 후에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되어 이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어릴 적 단순하게 즐겼던 이 게임이 성인이 된 작가에게 현재 작가를 둘러싼 자본주의 사회의 축소판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돈’이란 단순한 그 자체의 의미를 넘어 우리를 압박하고 지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속에서 작가는 외부의 압박으로 부터의 자유에 대한 갈망과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그 안에서 작가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말하고자 합니다.

작가는 ‘나에게 예술은 어렵고 거창한것이 아니며 현재 나에게 있어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사회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개개인이 가진 무수히 다른 시각으로 내 그림을 즐겨주길 바란다. 그림 하나하나가 갖고있는 메세지의 전달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독점해 억누르는 것들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에서 관람자를 또한 어떠한 규칙이나 규제없이 원하는 것을 보고 온전히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전시가 되길 바랍니다.

## ■ < 주요작품>

---



Apple

사과와 폭탄을 합친 모습의

이 작품은 ‘사과박스 안에는 얼마의 현금이 들어갈까’라는 주제의 기사를 보고 영감을 받았다.  
우리에게 사과박스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를 주는 것은 성공에 대한 인간의 갈망과 그로 인해  
보여지는 본질적인 욕망에 대한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자본주의가 만연한 한국의 현시대  
이미지 이기도 하다.



VISA

Visa 는 작가의 첫 글자 시리즈

작업으로 우리가 항상 필요로 하여 지니고 있지만 얹매여 있는 것에(여러 가지 요인 중에 ‘돈’) 대하여 이야기한다. 더 나아가 작가가 궁극적으로 표명하는 주제인 주입식 사고와 억압된 사회에서 우리가 가진 권리, 현실에 맞닿아 무시되는 개개인의 자유와(표현 방식부터 사고의 확장 등) 연결된다.

번외/

‘VISA’를 소리내어 읊으면 우리말 ‘비싸’가 연상된다. 이 부분에서 작품이 커질수록 값이 비싸지는 자본주의의 단면적인 특징에 작가는 반성과 동시에 흥미를 느꼈다.